

해킹 대책에 3676억 쏟은 통신3사… 국감서 실효성 따진다

정보보호 투자·인력 대폭 늘려
실제 보안체계 개선 현황 집중 점검
고가 요금제 지원금 경쟁 등 ‘쟁점’

지난해 잇따른 해킹 사고로 홍역을 치른 통신3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안 후속조치를 점검받는다. 사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인력 확충에 나선 만큼 실제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안 관리체계가 재발방지 조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최근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해킹 사고 이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 각사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확대가 시스템 취약점 개선과 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보안 사고 이후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총

3676억원으로 전년보다 22.1% 증가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합산해 정보보호에 1434억원을 투자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276억원, 966억원을 집행했다.

전담 인력도 확대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526명으로 전년보다 56% 늘었다. KT(317명)와 LG유플러스(351명)는 각각 9%, 20% 증가했다.

통신 3사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만큼 국회는 실제 이행 여부도 따져볼 전망이다. 각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KT는 1조원, SK텔레콤은 7000억원,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침해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KT와 LG유플러스는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별개로 2024년

발생한 서버 악성코드 감염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개보위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불거진 서버 폐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 나타난 고가 요금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 문제가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 통신 3사의 1인당 평균 공통 지원금은 39만9000원으로 15% 늘었다. 다만,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경쟁이 실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논란이다.

이 밖에 유통점별 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중소 유통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네이버, AI 팩토리에 ‘보안 AI’ 신는다

과기부 보안 AI 개발 사업자 선정
700B급 보안 특화 AI 모델 2종
LG CNS 등 33개 기관과 개발

네이버가 해외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보안 AI까지 함께 공급한다.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구동하는 ‘공장’뿐 아니라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모델과 이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안 기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 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보안 AI 모델을 향후 글로벌 AI 팩토리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국가에 AI 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컴퓨팅 인프라와 현지에 특화된 AI 모델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보안 AI까지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다.

◆AI 팩토리에 ‘보안 독파모’ 신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LG CNS 등 총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

한다.

컨소시엄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의 ‘엑스원’을 기반으로 700B급 보안 특화 AI 모델 2종을 개발한다. GPU 4000장을 투입하고 약 830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다.

일반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모델은 사이버 위협 분석과 대응 등 보안 업무에 특화된다.

개발된 모델은 전력·금융·과학기술·통신·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 등 7대 전략산업과 국가 핵심시설에서 실증한다. 외부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폐쇄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안이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보안 AI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이를 해외 AI 팩토리 사업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현재 엔비디아, 브룩필드 등과 협력해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세종’의 AI 팩토리 규모를 기존 55메가와트(MW)에서 2028년 200MW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인프라·AI·보안 묶어 ‘폴스택’ 수출

보안 AI가 결합되면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 영역도 넓어진다. 데이터센터와 G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모델과 이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네이버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소버린 AI는 각 국가가 자국 데이터와 언어, 문화에 맞는 AI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단위 AI 인프라인 만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와 모델을 보호할 보안 기술도 중요하다.

네이버는 해외에 구축하는 AI 팩토리를 향후 ‘사이버안보 협력 허브’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계 각지의 AI 팩토리에서 보안 AI를 함께 가동하고 각 거점에서 축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경험과 보안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결국 AI 팩토리를 단순한 데이터센터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AI와 사이버보안을 함께 담당하는 거점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프라와 AI 모델, 보안까지 자체 생태계에서 제공할 수 있어 글로벌 소버린 AI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내달 출시

12가지 기술 자유롭게 변경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모바일 MMORPG ‘도깨비의세계’를 내달 8일 오전 11시 정식 출시한다. 복잡한 성장 시스템과 고정된 직업 체계 등 기존 MMORPG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2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도깨비의세계’는 이용자가 별도의 공략이나 복잡한 효율 계산 없이 플레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장 과정에서 무작위 실패 확률이나 조건부 제약을 줄이고 기술 성장에 따른 성능 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캐릭터 생성 단계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도 낮췄다. 이용자는 12가지 기술 스타일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전투할 수 있다. 기술 스타일은 정면 화력, 거리와 흐름, 변수와 제어, 아군과 전선 등 4개 계열로 나뉜다.

사냥과 보스 레이드, 문과 전장 등 콘텐츠에 따라 기술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새로운 직업을 플레이하기 위해 캐릭터를 처



도깨비의 세계 대표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음부터 다시 육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동일 계열 기술 3개를 조합하면 궁극기 강화와 전용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신식 개방’ 시스템도 적용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요몽’도 게임 내에 탑재한다. 요몽은 이용자의 사냥 데이터와 재화 소비량, 성장 상황 등을 분석해 부족한 성장 요소와 전술 방향 등을 안내한다. 외부 커뮤니티나 영상 플랫폼에서 별도로 공략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다.

문과 콘텐츠 참여 현황과 소셜 활동 기록 등도 요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과와 연계한 일부 확장 기능은 정식 출시 이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 AI로 크리에이터 지원 확대

편집·번역·댓글 관리 기능 공개

유튜브가 영상 편집부터 댓글 관리, 실시간 번역까지 크리에이터의 작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확대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행사 ‘메이드 온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AI 기능을 공개했다. 새 기능에는 모회사 구글의 AI 모델이 활용된다.

유튜브는 2027년 초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니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편집 도우미를 유튜브 쇼츠와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크리에이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영상 편집을 돕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크

리에이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콘텐츠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유튜브는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댓글 관리 기능을 시험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얼굴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AI 영상을 찾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외형 감지 도구’도 확대하고 향후 음성 보호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라이브 방송에는 AI 자동 더빙 기능을 적용한다. 2027년 초부터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다른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브 시청 시간이 가운데 해외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 만큼 언어 장벽을 낮춰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시청자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빛나 기자

KT ‘오토모델라우터’, 글로벌 평가 2위

LLM 라우터 전문 벤치마크서
정확도·비용 최적화 인정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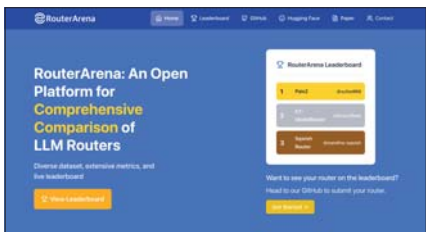
KT는 인공지능(AI) 모델 라우팅 기술 ‘오토모델라우터’가 거대언어모델(LLM) 라우터 전문 공개 벤치마크인 라우터 아레나에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우터아레나는 미국 라이스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LLM 라우터 평가 플랫폼이다. 약 8400개의 질의를 활용해 AI 라우터의 응답 정확도와 비용 효율성, 입력 변화에 대한 견고성 등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T-모델라우터’로 공개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린 이 기술은 핵심 평가 기준인 ‘Acc-코스트 아레나’ 기준 2위에 올랐다. 이는 정확도와 비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 모델 라우터 등 상용 기술이 등재됐다.

회사 측은 “여러 AI 모델 가운데 이용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면서도 품질과 비용을 함께 최적화하는 KT의 모델 라우팅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라우팅이란 데이터가 전달되는 네트워크 과정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LLM 라우터 전문 공개 벤치마크 라우터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KT의 ‘KT-모델라우터’가 종합 2위를 기록했다.

/KT

과정이다.

KT가 개발한 오토모델라우터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 난이도, 지식 분야를 여러 AI 모델 중에서 선택하는 기술이다. 모델별로 응답 품질과 이용 비용을 고려한 라우팅 정책에 따라 해당 요청을 처리할 모델을 연결한다.

/조민선 기자